

쇼팽의 재림

1.

1848년 11월 22일, 런던의 한 소공연장.

그곳에서는 한창 폴란드 난민들을 위한 자선연주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무난하군.’

공연장의 뒤편에 있는 작은 대기실. 방음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벽 틈으로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생생히 들려온다. 나는 대기실의 낡은 의자에 앉은 채 방금 있었던 연주를 복기했다. 프랑스인 작곡가라고 했었지 아마. 딱히 기억에 남는 연주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먹고살기는 좋은 스타일이야.’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은 저런 것이다. 가볍고 경쾌한, 피아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쳐볼 수 있는 음악. 그것이 현재 유럽의 클래식 작곡 세계.

‘슬슬 가볼까.’

이제 내 차례다. 자선연주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주.

입장 신호가 떨어지자 나는 작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 올랐다. 인사를 마치고 여유롭게 의자에 앉은 뒤,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의 모습을 돌아본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이 나와 같은 폴란드인일 터.

‘뭘 연주하지?’

이번 연주는 미리 곡을 정해두지 않았다. 며칠간 병세가 악화되어서 연주회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까지 고민했다. 오늘 아침부터는 몸 상태가 꽤 괜찮아져서 이렇게 연주회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어쩌면 런던에서의 마지막 연주회를 잘 끝마치라는 마지막 행운일지도.

‘...상드.’

조르주 상드. 아른거리는 조명 불빛 아래에서 별안간 그녀가 떠올랐다. 왜 하필 그녀인가.

이미 끝난 인연인데.

‘비극인가.’

그 순간 머릿속에 처야 할 곡이 떠올랐다. 짧은 심호흡을 끝으로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린 찰나의 순간. 연주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펼쳐졌다.

공연장에 울려 퍼지는 첫 음은 네아폴리탄 6화음, 변음화음이다. G단조이지만 C로 시작하는 특이한 도입부. 나는 이 드라마틱한 도입부를 좋아한다.

슈톡하우젠 남작에게 헌정한 나의 첫 번째 발라드.
쇼팽 발라드 1번-Op.23 G Minor.

웅장했던 도입부의 울림은 점차 사그라지고, 왈츠를 연상시키는 주선율이 이어진다. 조금씩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

부드러운 음과 함께 이어지는 행복했던 나날들. 그러나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이미지는 아니다. 그곳의 어딘가에 분명 슬픔도 존재한다.

점점 상승하던 음은 곧 폭풍을 맞이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따라서 휘몰아치는 음들의 폭풍. 마치 전혀 다른 곡처럼 대비되는 두 구간. 폭풍이 한차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주선율이다.

천천히 건반을 짚으면 더 맑아지고 더 따뜻해진 음들이 나를 반겨온다. 허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점점 거세지는 불안한 음정들. 그리고 마침내 곡의 하이라이트에 도달한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감촉에 신경을 쓰면서 모든 것을 쏟아 붙는다. 마치 목숨이라도 내줄 것처럼. 하이라이트는 짧다. 나의 행복했던 시간과 함께, 미친 듯이 손을 움직이면 건반들이 섞여서 빛나기 시작한다.

이 짧은 생애 더는 후회가 없도록.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건반을 두드린다.
코다를 지나서 마지막 부분.

이처럼 감정에 고조된 적이 있었을까.
온 힘을 다해서 피아노에 감정을 실었다. 내 마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녀가 이 연주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딴!!
연주가 끝났다.

그와 동시에 공연장을 떠나갈 듯 몰아치는 환호와 박수 소리. 나는 그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다.

“브라보! 미쳤어!”
“최고다!!”
“역시 쇼팽이야!”

살짝 땀에 젖어서 번들거리는 눈가. 낡은 그랜드 피아노와 삐걱거리는 의자에서 풍겨오는 메마른 먼지 냄새. 절대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아마 대부분의 음악가가 겨우 이 장면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이다. 청중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연주를 보이는 것. 그것이 음악가의 숙명.

환한 미소를 띤 채로 고개를 연신 숙였다.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함성과 박수. 이제 내일이면 런던을 떠난다. 길었던 여행도 이제 끝이다. 파리로 돌아가면 이런 연주를 또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하군. 기쁨에 겨워 죽어버릴 것만 같아.’

이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며. 나는 무대 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외로운 음악가의 운명은 무엇일까.
선천적으로 병약한 몸에 소심하고 순진한 성격.
내 세상은 온통 흑백이었다.
하얀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삶.

나는 그 무채색의 세상에 나만의 음을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그려낸 음들은 수백 개의 곡이 되었다.
평생 피아노를 바라보며 살았다.

조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연주하고 작곡하는 삶.
나는 그런 음악가의 인생이 좋았다.

완벽한 연주를 마치고 무대 위를 내려오던 순간.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곡이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순간.

수많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일어서게 한 건 피아노였다.
절대 잊을 수 없는 단 한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음악가.

‘그것이 나의 운명.’

달빛이 부드럽게 비쳐오는 창가 옆의 침대.
런던에서의 마지막 공개연주회 이후로 1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침대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고질적인 결핵. 이제는 어떤 명의가 와도 손쓸 수 없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크뤼베이에르.”

침상 옆에서 나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살피던 담당의 크뤼베이에르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월 16일.”

어느 순간부터 시간 감각이 완전히 붕 떠버렸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기억도 뚜렷하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를 고통과 함께 살아갈 뿐이다.

“곧 있으면 자정이네, 쇼팽.”

“벌써 시간이...”

나는 중얼거리듯이 몇 마디를 더 뱉은 뒤 다시 눈을 감았다. 기침과 함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다시 닥쳐온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미 가슴 깊은 곳에는 죽음이 자리 잡았다.
나는 아마도 곧 죽을 것이다.

“그녀가 왔나요?”

“...미안하네.”

흐릿한 시야 탓에 주변인들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들 나를 보러 왔을 텐데. 그녀, 상드가 오지 않았다는 말에 조금은 가슴이 미어졌다. 안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과 함께 이어지는 거친 기침.

팔을 꼭 찌르는 차가운 느낌에 살짝 눈동자를 내렸다. 아마 진통제를 주사한 것이겠지.

“몸은 좀 어떤가 쇼팽.”

박사의 걱정 어린 물음이 귀에 웅웅 울린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한 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만 감았을 뿐인데 그 잠깐동안 잠들었던 걸까, 아주 짧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어머니가 나를 반갑게 안아주었다.
잘했다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더 울지 말라고.
다시 눈을 뜨려 하니 메마른 눈가에 눈물이 어린다.

숨 쉬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
아니 그 간격이 점점 느려지는 걸까.
잘 모르겠다.

“어머니.....나의..어머니.”

있는 힘껏 힘을 짜내서 목청을 올렸다.

눈앞에서 뭔가 반짝인다.
저건 별인가.
나의 별.

피아노를 치고 싶다.

*

*

*

이건 도대체 누구의 기억인가.

“아...”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서 악보를 보고 있던 소년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멈출 수도 없이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입술을 씹으며 울음을 삼켰다.

“나는.....”

열게 흘러나오는 아직 앓된 소년의 목소리.
김재하. 나는 프레데리크 프랑수아 쇼팽의 환생이다.

2.

‘말도 안 돼.’

전생의 기억을 찾은 직후, 재하는 인터넷에서 과거에 대한 기록을 미친 듯이 찾아봤다. 2017년 현재. 놀랍게도 쇼팽은 클래식 작곡계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미 쇼팽의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두 눈으로 봐야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심지어 내 이름을 딴 콩쿠르도 있단 말이지.’

전생에 작곡한 곡들은 살아있을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대담한 불협화음과 기교는 쇼팽을 작곡계의 이단으로 취급받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허나 지금은 독특한 음악적 개성이라고 인정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쇼팽의 음악을 아직 까지도 즐겨 듣는다.

‘죽어서야 인정받았다니.’

한 평생 오직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했다. 피아니스트로서는 정점에 오른 삶이었지만, 작곡가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쇼팽만의 음악 세계는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맞았던 거야.’

39살에 단명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곡을 남겼다는 것에 만족한다. 그것으로 쇼팽의 삶은 완전한 가치를 찾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폴란드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두 번째 생. 재하는 이제 한창 여름방학을 지내고 있는 1학년 고등학생이다. 대한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피아니스트 지망생.

소심하고 병약했던 첫 번째 생과는 전혀 상반되는 건강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다.

‘두 번째 삶에도 피아노라……’

재하는 쓴웃음을 지으며 침대에서 다시 일어섰다. 특출난 천재였던 쇼팽과는 달리 이번 생은 아주 평범하다. 그저 피아노를 좋아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운 소년.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 하나만으로 겨우 대한예고에 붙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지난 생의 마지막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숨을 거두기 직전. 눈앞에 떠올랐던 반짝이는 빛.

“아.”

그 순간, 재하는 홀린 듯이 방문을 열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발을 신발 속에 밀어 넣고 허겁지겁 현관을 나선다.

“아들?”

문이 닫히기 직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울렸지만 온 정신이 한 곳에 팔린 재하의 귀에는 닿지 못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미친 듯이 거리를 내달리던 재하의 발걸음이 익숙한 장소 앞에서 멈췄다. 그가 방학마다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는 집 근처 상가의 피아노 연습실. 주말 저녁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문이 열려있었다.

항상 사용하는 연습실의 문을 열고, 천천히 방 안을 돌아보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벽의 한쪽에 붙어있는 검은색 야하마 피아노.
피아노가 눈에 들어온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피아노 하나에 모든 것을 담았다.

‘나의 별.’

절대 잊을 수 없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것이 저 피아노 안에 있다.

재하는 덜덜 떨려오는 두 손을 다시 한번 건반 위에 올렸다.
이미 전생을 깨달은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필연적인 운명.

‘나는 피아니스트다.’

그것은 수백 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하얀 건반을 가볍게 누르자 그토록 그리웠던 피아노 음이 새어 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작동시킨 듯한 느낌.

재하는 방안의 건조한 공기를 삼키며 정신을 다시 가다듬었다. 가쁘게 헐떡이던 숨이 점차 잦아들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곧이어 연습실 안에 울려 퍼지는 첫 번째 음.
어린 시절, 바르샤바의 귀족들 앞에서 첫 연주회를 열었을 때의 심정.
떨리는 손으로 미스 터치 하나 없는 완벽한 연주를 해냈을 때의 기억.

재하는 아주 오래된 기억을 피아노 위에서 되살려냈다.

‘이 곡도 오랜만이야.’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 1악장.
가지런한 반주와 경쾌한 선율이 함께 어우러지는 곡. 재하는 투박한 손길에 음이 씹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연주를 이어나갔다.

피아노의 소리에 집중하고 몰입할수록 점점 주변의 풍경이 변화한다. 어느새 재하는 연주회가 한창 진행 중인 작은 살롱 안에서 연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음 처리가 되어있던 회색 벽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반대편 건물의 벽이 보이는 작은 창문은 귀족들이 앉아있는 고급스러운 테이블로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조용하게 음악이 울려 퍼진다.

교복은 하얀색 정장이 되었고 검은색 야하마 피아노는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가 되었다. 부드럽고도 얇은 소리가 살롱 안을 가득 메우며 퍼져 나간다. 쇼팽을 바라보고 있던 귀족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연주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폴란드에 새로운 음악 천재가 나타난 순간. 다들 혼을 뺐진 듯이 멍하게 쇼팽의 연주를 감상한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에도 단 하나의 음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가는 피아노의 울림. 그가 평생 존경했던 모차르트의 음악. 천재적인 그의 악보를 이해하고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음의 향연.

재하는 다시 한번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손가락의 끝에 힘을 실었다.

4분간의 회상.

마지막 화음과 함께 연주가 끝이 났다.

시린 눈가를 타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눈물.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다.

재하의 어머니, 이시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조금 전에 막내아들 재하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애가 폰도 두고 어디를…….”

안방에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늦게 달려갔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헉, 헉.”

급하게 그의 뒤를 쫓아서 도착한 곳은 재하가 방학 동안 매일 다닌 피아노 연습실.

‘피아노 연습하러 가는데 말도 안 하고 가네 애는? 깜짝 놀랐잖아.’

시연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연습실의 간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랜만에 보러…가볼까…’

재하는 음악에 특출난 재능이 없었다.

그래서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또래 지망생들이 연습하는 시간의 두 배, 세 배를 연습했다. 그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까지는 겨우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고등학생 시기, 지금부터는 아마 무슨 짓을 해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미 재하의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했고 재하와 다른 반 아이들의 실력이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음악은 노력과 열정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때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실.

하지만 시연은 아들이 얼마나 피아노를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고 진학을 막을 수 없었다. 열심히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서러움이 피어났다. 하늘은 왜 저런 아이에게 재능을 내려주지 않은 걸까.

허나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억누르고 열심히 아들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시연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평소와는 다르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연습실 복도 안.

그때였다.

시연의 귓가를 스치는 부드러운 화음. 경쾌하게 시작된 연주는 그녀를 복도에 멈춰 서게 하였다. 툭툭 튀듯이 공간에 깊이 스며드는 연주.

“이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연습실의 문틈으로 새어 나온 음들은 복도를 찬란하게 물들였다. 하얀색의 형광등 불빛이 아닌 유려한 황금색 빛. 그 빛이 시연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점점 낮을 잃고 연주에 빠져들었다.
처음 바이올린을 켰을 때도 이렇게 두근거리지는 않았는데.

시연은 눈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연습실 앞으로 다가섰다.
연습실 안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앉아있었다.
활짝 웃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재하.
덜컥. 시연은 그대로 연습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를 꼭 안았다.

“어..엄마?”

당황스러운 얼굴로 시연을 바라보는 재하.
재하는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 오셨어요?”

모든 것이 오만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방금 수많은 사람이 연주는 무언가가 달랐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하는 효율적인 연주. 방학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하러 가던 수많은 사람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게다가 연주에 깊은 감정 묘사가 더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사람이 다른 공간에서 연주를 들은 듯한 기분.

“재하야.”

“...네?”

시연의 눈가에서 한줄기 눈물이 툭 떨어졌다.

“피아노가 좋니?”

재하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
두 눈동자가 서로를 응시한다.

“네.”

어느 때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재하의 눈동자.

“저 잘할 수 있어요.”

시연은 수많은 사람이 대답에 눈물을 왈각 쏟았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대견함이 눈물이 되어서 펄펄 흘러내린다. 재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따뜻한 아들의 품속. 아들의 몸이 언제 이렇게 커졌는지 세월이 야속할 정도였다.

어머니가 울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강인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처음 목놓아 울던 날.
그날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그리고 지금, 품 안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쏟고 있다.
옷 위에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하얀색 건반과 검은색 건반으로만 이루어진 삶.
그 짧고 후회 많았던 삶의 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왔다.
어떻게 해서든 피아노와 함께할 운명이라면. 거부하지 않겠다.

전생에 미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생에 해보고 싶다.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는 쇼팽을 뛰어넘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겠다.

‘내가 나를 뛰어넘는다.’

재하는 손이 아파질 정도로 주먹을 짹 쥐었다.
17살 여름,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3.

연습, 또 연습. 눈 깜짝할 사이에 1주가 지났다.

1주일 동안 피아노에 대한 옛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일 대부분 시간을 연습실에서 보냈다. 원래 재하의 수준에서 평가하자면 1주 동안 실력은 말도 안 되게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연주에 좀처럼 실리지 않던 감정이 실렸고, 항상 지적받던 투박한 음 조절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부족해.’

허나 세계 최정상급 피아니스트인 쇼팽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까지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연주이다. 전생에 사용했던 수많은 기교와 강약 조절을 몸에 익혀서 완벽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원래 연습하면 할수록 끝이 보이지 않는 법.’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벽을 넘어서는 순간, 연주가로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다.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그를 반갑게 반겼다.

“아들,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지?”

환하게 웃으며 재하를 토닥여 주는 그녀.

“네.”

“짐은 다 챙겼어?”

“미리 챙겨 났어요.”

“그래, 화이팅이다 올 아들.”

어머니는 대견스러운지 재하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었다.

내일 모래는 개학식. 대한예고의 기숙사로 돌아가서 다시 학교생활을 시작할 차례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은 시설이 있는 대한예술고등학교. 그만큼 입시도 더럽게 어렵지만 일단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에 재하도 한 학기 동안 두 번의 콩쿠르에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두 번 다 망했지만.’

그런데 그런 한국예고에 붙었다니, 재하는 아직도 그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좋아서 그런 걸까? 실기 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거의 꼴등으로 입학한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미스 터치를 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의 몇 달 간 연습실 안에서만 살았었다.

‘그때 기억을 찾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재하는 미끄러지듯 방안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다. 곧이어 불빛을 반짝이며 켜지는 모니터. 뭉친 팔 근육을 매만지며 마우스를 잡는다. 키보드 소리와 함께 화면이 넘어가자 나타나는 유튜브 창. 재하는 실룩거리는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검색창에 ‘쇼팽’을 검색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쇼팽의 연주곡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거지.”

재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뿌듯함을 느끼며 하나하나 곡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이 해석한 연주는 어떠한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네.’

세계적인 거장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들은 각자 저마다의 연주 방식과 해석 방향이 갖춰져 있었다. 누구는 조금 더 템포를 약간 끌어올리며 밝은 분위기를 강조시켰다면 누구는 완전 그 반대로 연주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재하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흘린 듯이 누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쇼팽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모차르트와 바흐의 곡 연주 영상까지 찾아보게 되었다.

모차르트와 바흐. 이 둘은 자신의 음악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바흐의 완벽한 음악 체계를 피아노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자신만의 피아노 테크닉으로 만들어냈을 정도. 항상 제자들에게는 손가락 연습을 하려면 바흐의 곡으로 연습하라고 말해왔었던 그였다.

‘언제 들어도 종단 말이야.’

지난 생에는 피아노에만 모든 것을 바쳤다. 일평생 200여 개가 넘는 곡을 작곡했는데 거의 피아노 연주곡이니 말 다했다.

‘그분들처럼 오케스트라 곡도 많이 만들어보고 싶은데.’

확실히 관현악과 성악 부분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작곡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풍부해야지 더 완성도 높은 곡이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이번에는 그런 관현악과 성악에 관해서도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피아노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말이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잠을 깨우는 안내 방송. 역 안의 플랫폼으로 진입한 열차가 덜컹거리며 점차 속도를 늦춘다.

-이번 역은...

역의 2번 출구로 나오자 곧바로 대한예술고등학교의 정문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안쪽으로 위치한 대리석의 하얀 건물들.

설립된 지 꽤 오래된 학교인데도 건물이 새것처럼 크고 깨끗하다. 교내의 부지도 엄청나게 크고 각종 건물이 많아서 대학교 같다는 말도 종종 들을 정도.

재하는 오래전,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음악을 공부할 때의 추억을 회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던 그때. 그는 또 한 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발길을 돌렸다.

기숙사 방으로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자 방 안에는 먼저 온 룸메이트, 임재민이 있었다.

“어, 재하야!”

반갑게 재하를 맞이하는 재민.
재하 또한 방긋 웃음 지으며 두 손을 활짝 올렸다.

“오랜만이다.”
“실력은 좀 늘었어? 너 방학 동안 안 놀고 연습만 했잖아.”

장난스럽게 물어보는 재민의 질문에 재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 애들이 놀자고 졸라도 바쁘다고 했잖아.”
“한번 나갔잖아.”
“한 번? 지금 한 번으로 생색내는 거?!”
“뭐라냐.”

손을 휘저으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재민을 살짝 밀어낸 재하는 다시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본관 5층의 전공 2반 교실.

개학식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각자의 교실에서 틀어주는 방송을 10분가량 듣고는 바로 정규 수업이 시작되었다.

인원수가 제일 많은 피아노과는 입시 성적별로 반이 2개로 나뉘었다. 입시 성적이 제일 좋은 우수한 30명이 1반에 모조리 배정되고 1반에 들지 못한 나머지는 2반에 배정되는 방식이다. 기계적인 연주로 겨우겨우 커트라인을 통과했었던 재하는 당연하게도 2반을 배정받았다.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검은색 뿔테 안경. 같은 피아노과인 재민이도 2반이지만 재하보다는 형편이 괜찮았다. 갈수록 실력이 점점 상승해서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재하의 성적은 매우 좋지 않다. 학기마다 진행되는 향상연주회와 실기 시험을 말아 먹었고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콩쿠르도 둘 다 예선 탈락. 하위권에서도 최하위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재하의 현 상황.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뒤로 앉아있는 30여 명의 아이들. 반 아이들 대부분이 시끌벅적하게 떠들며 2학기의 시작을 알린다.

“야, 그거 들었어?”

“뭐를?”

재하의 옆자리에 앉은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주변을 힐끔힐끔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반마다 개인 연주 한다는 거.”

“들었지.”

반별 개인 연주. 반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 앞에서 연주하고 따로 평가를 받는 일종의 클리닉. 반 아이들에게 경쟁심과 동기를 심어준다는 것이 이 개인 연주 평가의 목표라고 한다.

“후……제발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곡 준비했는데?”

“나? 쇼팽 추격. 방학 동안 그것만 주구장창 연습했거든.”

“아하, 에튀드.”

재민의 대답에 재하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을 전 세계의 수많은 지망생이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다.

곧이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담임 선생님, 하민지 선생이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

그녀는 활짝 웃으며 학생들을 돌아봤다 .

“방학 잘 지냈니?”

“네!”

여느 때처럼 반 아이들을 환영하는 평범한 인사말이 끝나자, 그녀는 학교생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학기 엄청 빨리 끝났지?”

그녀의 말에 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2학기는 더 빨리 지나갈 거야. 당장 9월 첫째 주 부터 향상연주회 시작하고.”

의미심장한 웃음과 함께 다음 말이 이어진다.

“또 개별 콩쿠르 참여하고 10월에는 1차 실기 시험. 12월에는 2차 실기 시험 보지? 게다가 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줄.

“설 틈 없을 거야. 다들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힘내보자!”

“네~!”

“자! 그럼 개인 연주 평가부터 바로 시작할게.”

정겹게 미소 지으며 학생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선사하는 하민지 선생.

“바.....바로요?”

“응! 그래도 피드백은 따로 불러서 상담할 때 할 테니까 마음 풀고 편안하게 연주하면 돼.”

사방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한숨 소리. 그녀는 출석부를 한번 훑고는 이름을 불렀다.

“김재하?”

그랜드 피아노에 손을 살짝 걸치며 빙그레 미소 짓는 그녀.

잠시 교실에 정적이 돌았다.

“...네?”

“재하가 1번이잖아, 어서 나오세요~”

재하는 자신이 1번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다. 하필 이럴 때 1번이라니... 보통 제일 먼저 연주한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인데. 옆을 훑어 보니 주변 아이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다들 첫 번째가 아니라서 안도한 모양.

“수고.”

“킁킁.”

재하는 바로 뒤에서 킁거리는 웃음을 무시한 채 앞으로 걸어 나갔다.

끼이익. 까만 그랜드 피아노의 덮개를 열자,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건반이 그를 맞이했다.

“후우.”

기분 좋은 고양감이 전신을 감돈다. 분명 개인 평가 시간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작은 연주회나 다름없다. 연주를 지켜보는 수십 명의 청중들. 몇은 자신을 걱정하는 표정. 몇은 무관심한 표정. 하위권 중에서도 바닥인 재하의 연주를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편안하게.’

이제 피아노 위에서 춤을 출 시간이다.

“준비되면 시작하렴.”

고개를 살짝 끄덕인 재하는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렸다. 교실 안의 모두가 재하의 움직임에 눈길을 뺀 순간. 연주가 시작되었다.

임팩트 있게 올려 퍼지는 첫 음.

쇼팽 에튀드 Op.10 No.1

그 순간, 하민지 선생의 가느다란 눈이 동그랗게 변했다.

‘어?’

별 생각 없이 연주를 지켜보던 반 아이들도 경악하며 입을 벌렸다.

‘뭐..뭐야?’

오른손의 완벽한 아르페지오가 이어지자, 교실 안의 풍경이 변했다.

썩아아.

물이 떨어지는 소리.

재하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풍경을 색칠하기 시작했다.
파란색, 초록색, 하얀색. 뚜렷한 색이 음악에 실려서 주변을 장식한다.

‘이건……’

하민지 선생은 재하의 연주에서 폭포를 볼 수 있었다.

울창한 숲속의 한가운데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파란색 빛 폭포. 차가운 이슬이 맺힌 풀밭에 발을 내딛고, 흘러오는 음들에 눈을 감고 몸을 맡긴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한 걸까. 그녀는 머릿속에 피어나는 의문을 잠시 지우고 재하의 연주에 집중했다.

오른손이 화려한 춤을 춘다.

왼손은 노래한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하모니가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음악.

2분간의 연주가 겨우 5초처럼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두근.

꼭 밟은 페달을 통해서 여운의 시간이 이어진다.

연주가 끝났음에도 하민지 선생은 헛소리 입을 열지 못했다.

두근.

아직까지 귓가에 머물러있는 연주의 감동.

재하는 씨익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두근.

가슴이 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뜨겁게 가슴이 뛴다.

4.

‘이게……’

말로는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없는 연주.

하민지 선생은 살짝 멍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저었다.

‘뭐지?’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어떻게?’

분명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다. 끝 부분에 약간의 박자 미스가 있었고, 터치와 기교 부분에서는 확실히 단점이 보였다.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봐야 할까.

그러나 그런 단점들은 압도적인 감정 표현에 모두 상쇄되었다.

눈앞에서 폭포가 아른거리는 듯한 느낌을 고작 학생의 피아노 연주에서 들을 줄이야.

‘이게 말이 돼?’

다른 학생들이 저렇게 연주했다면 오히려 부족한 점들이 더 부각되어서 역효과를 낼 것이다.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감정 과잉이 되어버린다든지, 몰입하지 못해서 기계 같은 연주를 해버린다든지 등등.

그러나 재하는 그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해버렸다. 마치 악보를 자기가 쓴 것처럼 자유자재로 곡을 다룬다고 해야 할까. 게다가, 깊고 노련한 감정처리는 이제 겨우 한국예고 1학년인 학생이 만들어낸 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방학 동안 도대체 뭘 한 거야?’

분명 재하는 1학기에는 이런 연주를 하지 못했다. 음에 감정을 실지 못해서 기계처럼 연주하는 것은 재하가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고쳐졌다.

투박한 터치와 몸매 잘 맞지 않는 기교. 만약 이 단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베테랑 선생인 그녀도 예측할 수 없었다.

‘거장한테 1대1 개인 지도라도 받았나..?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와 씨! 대박!”

연주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자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재민과 친구들이 그를 반겼다.

“너 뭐야? 왜 이렇게 잘 치냐?”

“재하야 뭐냐 너? 대박이다.”

재하는 대답 없이 살짝 미소를 짓고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주변의 관심을 즐기는 성격은 전 생애도 현생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재민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아까는 무관심의 표정이 었다면, 지금은 호기심과 경악의 표정. 다들 방금 연주에 감명받은 듯 보인다.

다들 문제점을 찾지 못한 모양인데, 그렇다면 연주를 보는 실력이 부족한 거다. 확실히 방금 연주는 아쉬운 수준이었다.

‘아쉬워.’

도입부는 굉장히 잘 들어갔다. 만족스러울 정도로 화음과 아르페지오가 잘 이어져서 곧바로 연주에 몰입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후반부였다.

전생의 기억을 찾고 나서야 연습을 시작한 곡이라 그런지 아직 손가락이 곡에 익숙지 않아 미세하게 박자가 밀려난 탓에 집중이 깨져버렸다.

‘아마 연주 시간이 더 긴 곡이었다면 완전히 무너졌겠지.’

또한 재하의 연습법과 쇼팽의 연습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었다. 사람마다 다들 신체조건이 달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생에는 여린 손으로 기교와 표현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마스터함으로써 연주를 더욱 독보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전생의 연습법은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가진 재하의 몸에는 전혀 익숙지 않은 손가락 활용법이었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10년을 다른 방식으로 연습해왔는데 이제 와서 쇼팽의 방식으로 연주법이 쉽사리 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재하는 방학 동안 두 연습법의 장점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이 완벽히 익숙해지려면 대략 반년 정도……’

과거와 현재와의 조화. 그것이 현재 재하의 단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서는 절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제일 잘 아는 사실.

‘한번 해보자고.’

길었던 개인 연주 시간이 끝났다. 3교시 분량의 시간을 통으로 개인 연주 시간에 사용하는 바람에 수업이 끝나자 바로 점심시간 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실을 뛰쳐나가는 반 아이들. 재하는 느긋하게 앉아서 공간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

어쭙피 바로 가도 급식실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서 기다려야 할 텐데 그런 것은 딱 질색이다.

“근데 진짜 뭐냐. 너 김재하 맞아?”

그런 여유로운 재하를 재민이 요리조리 살펴보며 질문했다.

“방학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무슨 치트키라도 썼냐?”

“하루종일 연습만 했다니까.”

“연습만 한다고 그게 된다고?”

재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흠……좀 깨달음이 있었지.”

재하는 눈을 살짝 돌리며 재민의 질문 공세를 피했다. 운 좋게 전생의 기억을 되찾았는데 그게 사실 쇼팽이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깨달음? 무슨 피아노의 신이랑 접신이라도 했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점심 메뉴 뭐라고 했지?”

재하는 열뻥한 표정의 재민을 의자에서 일으키며 애써 화제를 전환했다.

하민지 선생은 교무실에 턱을 괴고 앉아서 몇 번이고 재하의 연주를 머릿속에서 다시 되새겼다.

“흐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미스터리다.

‘항상 열심히 하는 아이긴 했는데…’

재하는 한시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틈이 나면 매일 개인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담임선생인 자신에게 개인 지도 요청을 수도 없이 해왔다. 포기하지 않고 매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기특했는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기라도 한 것일까.

“민지 쌤.”

한창 곰곰이 생각하던 중, 뒤에서 익숙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반 애들 시험은 괜찮았어요?”

1학년 1반의 담임. 김하연. 그녀도 막 1반 애들의 개인 연주를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참이었다.

“네, 다들 방학 동안 많이 연습한 티가 나더라고요.”

“그쵸! 우리 반 애들도 다 엄청나게 발전해서 기특해요……음? 근데 뭐 보고 계셨어요?”

“아..이거.”

김하연은 하민지의 책상에 놓인 김재하란 학생의 성적표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내신 성적 빼고는 처참한 실기 성적과 콩쿠르 성적. 그야말로 진로를 심히 고민해 봐야 하는 수준이었다. 차라리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빼고는 장점이 없는 성적표였다.

“에구,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살벌한 경쟁과 입시를 통해서 대학의 높낮이가 갈라지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엄청난 좌절을 겪고 대부분은 꿈을 포기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운명.

“이상해요.”

“이상하다뇨?”

혼란스러워하는 하민지의 말에 김하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학생이 이아현이랑 김현우를 뛰어넘는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아현이랑 현우요???”

펼쩍 뛰며 놀라는 김하연의 반응에 교무실의 이목이 둘 쪽으로 향했다.

이아현, 김현우.

명실상부 대한예고 피아노과의 최고 재능. 둘은 입시 시험 때부터 압도적인 연주를 보여주면서 1반으로 입학했다. 학교의 모든 선생이 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향상연주회, 실기 시험, 콩쿠르,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과 실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클래식계의 주목을 받는 중인 학생이 아현이와 현우다. 그런데 그 천재 둘을 뛰어넘는 잠재력이라니? 김하연은

하민지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쌤이 지금 날 놀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민지의 진중한 눈빛을 본 김하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에이. 잘못 들으셨겠죠. 운이 좋았거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

김하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생각했다.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달라진 게 엄청 감동적이었던 모양이야. 얼마나 감동이었으면 민지 쌤이 이런 착각을……’

“민지 쌤. 너무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 천천히 기다려 봐요. 애들이 경쟁할 시간은 충분히 많으니까.”

하민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이라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녀 자신도 아직 아까 전의 연주가 귓가에서 아른거리니 말이였다.

“현우랑 아현이를 뛰어넘는 잠재력이라면 금방 저희 눈에 들어오겠죠.”

“그거 맛있냐?”

재민은 행복한 표정으로 과일 푸딩을 떠먹는 재하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난 맛없던데.”

애꿎은 과일 푸딩을 젓가락으로 쿡쿡 쑤시는 재민의 모습.

“둘 다 여기 있었구나.”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재민과 재하는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플루트과의 김유현이었다. 재하와는 같은 동네 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

“연주는 잘했냐?”

자연스럽게 식판을 옆자리에 두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유현.

“그럭저럭.”

재민은 여전히 푸딩을 쿡쿡 찌르며 유현의 질문에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누가 봐도 더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제스처. 유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재하에게로 돌렸다.

“너는?”

“어.....그게.”

“재하 연주를 네가 봐야 하는데!”

재하의 연주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텐션이 급격히 상승한 재민이 재하의 말을 끊어놓았다. 자기 연주는 단 네 마디로 일축했던 그는 온갖 호들갑이란 호들갑은 다 떨면서 재하의 연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눈앞에 폭포가 보였다는 등 쇼팽이 접신해서 피아노를 치고 갔다는 등.... 재민이 말을 꺼낼 때마다 조금씩 몸을 움찔거리는 재하였다.

“뭐? 재하가?”

“진짜라니깐?”

재민의 이야기를 들은 유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하를 이리저리 쳐다봤다.

“방학 동안 도대체 연습을 얼마나 한 거야?”

유현은 환해진 표정으로 재하의 두 팔을 마구 흔들었다.

“축하한다 이놈아!”

재하의 주변 친구들은 재하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바뀌기 위해서 이 학교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재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

정말 간절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잘 와 닿는 법.

재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노력 천재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이번에는 콩쿠르 나갈꺼지?”

“어?”

사실 두 번의 예선 탈락 때문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신감 때문에 이후로 재하는 어떤 대회

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실력으로 대회에 참가해 봐야 비웃음만 살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생의 기억을 찾아서 들뜬 마음으로 새 학기를 출발한 시점. 새롭게 만들어낸 연주 기법이
몸에 조금만 더 익숙해진다면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도 노려볼 법했다.

“.....이번에는 나가 보려고.”

“오! 그래? 어디 생각해봤어?”

유현과 재민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재하의 대답을 기다렸다.

“서울 콩쿠르.”

“.....응??”

“응?”

유현은 잘못 들었다는 듯이 눈을 찌푸렸고 재민은 화들짝 놀라서 젓가락을 식판에 떨어트렸다.

“서.....서울 콩쿠르?”

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급식실 주변의 이목이 셋에게로 쏠렸다. 그도 그렇게, 크게 외친
단어도 하필 서울 콩쿠르였다.

서울 콩쿠르는 1년에 단 한 번씩만 열리는 유명한 콩쿠르이다.

전국에서 날고 기는 천재들만 참가한다고 소문이 자자한 서울 콩쿠르.

재하는 그곳에서 프레데르크 쇼팽, 자신의 실력을 현대의 천재들과 비교해 보고 싶었다.

“어, 서울 콩쿠르.”